"고유가 못살겠다" e-세상은 民亂?

정부 홈페이지 등에 비난 글 도배…12만 1,000여명 서명

싼 주유소 찾아 원정주유·보험사 비상급유 이용도 늘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값이 ℓ당 1천6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가계를 어렵게 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는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정부와 정유사 등을 맹비난하며 연일 성토의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8일 재경부, 산자부, 대한석유협회 등의 홈페이지는 고유가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름값 아끼는 법'과 '유사휘발유 구매하는 방법'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기름값이 올라도 유류세제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공개된 뒤 네티즌들의 분노는 사이버 서명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기름값 등 '5대 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 현재 12만1천3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유가폭등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대 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유값 인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는 하루 1천여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도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어 유가급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유테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카풀'이나 주유할인 혜택을 겨냥한 카드사용 등은 기본이고, 아예 차를 두고 출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BMW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수입차 브랜드인 'BMW'를 빗댄 말로, 승용차를 집에 둔 채 버스(Bus)와 지하철(Metro), 도보(Walking)로 이동하는 '알뜰족'을 일컫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해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주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에서 무료로 기름을 넣어주는 서비스인 비상급유 이용건수는 올 들어 4월까지 전국의 서비스건수가 7만6천건에 육박하면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주말 등을 이용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 원정을 나가는 실속형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 비교 사이트인 '오일프라이스워치(www.oilpricewatch.com)'를 이용해 '원정주유'에 나서고 있다.

'오일프라이스워치'의 분석 결과 지난 15일 현재 광주에서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1천579원과 1천489원으로 90원의 차이가 난다. 가장 싼 곳에서 5만원을 주유할 경우 2ℓ를 더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와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주최로 18일 조선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1등 광주만들기 산업평화포럼' 참석자들이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 노사정 전문가 길러야"

고려대 김동원 교수 '산업평화포럼'서 밝혀

분규 2004년이후 감소…"강성"은 오해

광주지역의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지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8일 광주시와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가 조선대에서 공동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1등 광주만들기 산업평화포럼'에 참여, '산업평화와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노사분규는 1980년대 말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함께 다시 증가, 2004년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05년 7건, 2006년 5건, 2007년 0건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노동조합은 모두 197개, 노조원은 1만1천768명으로 이중 한국노총 가입자는 5천554명(47.2%), 민주노총 가입자는 2천886명(24.5%), 상급단체 미가입자는 3천328명(28.6%)이었다.

김 교수는 "한국노총 50.8%, 민주노총 43.5%, 상급단체 미가입자 5.8% 등 전국 수치와 비교할 때 광주의 경우 민주노총 가입자와 상급단체 미가입자 비율이 크게 높아 비교적 온건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광주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노사정 전문가 육성 ▲산업평화선언 유도 ▲대학 노사관계 연구센터 설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 전남쌀·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등

'우리 농산물지키기' 큰 성과

한미FTA, DDA 등 농산물 개방위기를 맞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벌이고 있는 '우리 농촌·농협을 지키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남도와 함께 추진중인 전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용 등은 타지역 농협이 부러워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전남쌀 우수브랜드의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종합평가회를 통해 전국 제 1미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4년 연속 12위권안에 이름을 올렸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전국 1천300여 경쟁미를 물리치고 5개 브랜드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같은 성적을 기반으로 전남농협은 전남쌀 판촉 및 홍보행사를 꾸준히 전개해 수도권 롯데마트 10개점과 신규입점 약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현대오일뱅크 햅쌀가득 페스티벌'에 전남 햅쌀 55만포를 납품하기도 했다.

박용순 본부장은 "전남쌀의 전국제패는 '전국 제1미 생산'을 위해 자운영 재배확대, 질소질비료 감축 등 친환경농법 확대 보급을 비롯해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건조·보관·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지원책을 펴온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전남도와 전개해오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에는 19일 현재 518개 시범업소가 참여,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 고급브랜드 발굴도 전남농협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탄생한 '지리산 순한한우'는 지난 2005년 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백화점 등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4천여마리(280억원), 천지한우 역시 농협유통 등에 960여마리(60억원)를 납품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택대출 금리 인상 임박

다음달 1일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비율 상향조정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 인상 작업에 착수했다.

출연금을 내는 비율(출연료율)이 현행 대출금 잔액의 0.165%에서 최고 0.3%로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개점휴업인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섣불리 추가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출연료율 상승분을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행 시기를 각 은행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0.15%포인트 이내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차 혜택 더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소비자들의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과 함께 소비자들의 경차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유류소비가 가격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하는 문제는 시기에 따라, 조세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휘발유 소비가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유류가격이 인하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유류세 인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대-하이닉스 반도체

맞춤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전남대(총장 강정채·사진 왼쪽)는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와 '하이닉스반도체 트랙'을 운영키로 하고, 18일 서울 대치동 하이닉스반도체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하이닉스반도체 트랙'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방 명문 국립대학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경북대·충북대 등 3개 대학에 협약 체결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전남대 등은 하이닉스반도체와 함께 201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공과대학 반도체 관련학과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운영비를 지원해 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 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회사 인턴십 과정 이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극대화한 후 채용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